



'배트맨'의 악의 도시 '고담'을 그린 새 TV드라마 나온다...폭스TV

등록 2013.09.26 11:07:28 | 수정 2016.12.28 08:06:39

【로스앤젤레스=로이터/뉴시스】차의영 기자 =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악의 도시 '고담'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폭스TV의 새 드라마가 나올 예정이라고 이 방송사가 25일 발표했다.

폭스사는 타임워너사가 제작을 맡아 공급할 새 드라마 '고담'이 이 악의 도시를 유명하게 만든 악당들과 가끔씩 배트맨이 악당들과 싸워 이기도록 뒤에서 돕기도 하는 경찰 커미셔너 제임스 고든과의 대결을 구도로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라마의 각 에피소드는 한시간 짜리이며 구성과 집필은 영국 작가 브루너 헬러가 맡는다. 헬러는 줄리어스 시저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의 고대 로마 사극 '로마'(HBO-BBC 제작)의 크리에이터를 공동으로 맡았던 작가이다.

폭스사는 이 드라마가 정확히 언제 방영될 것인지와 캐스팅, 심지어 배트맨이 드라마에 등장하는지 여부 등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배트맨 시리즈의 최신작인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 나이트' 3부작이 크리스천 베일을 망토를 휘날리는 배트맨으로 내세워 세계적으로 무려 20억 달러의 대박을 터뜨린 바가 있어 전망은 밝다.

이 영화에서는 영국 배우 게리 올드만이 고든 형사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드라마 '고담'의 성공은 다시 영화 제작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cmr@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